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과 장 박호형 주무관 박기현	042-481-5168 042-481-5175
	2018년 2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2월 8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지식재산(IP) 서비스, 특허바우처로 부담은 줄이고 이용은 편리하게

- 업체 당 연간 최대 6천만원 발급 -

2014년 구글에 32억불에 인수된 스타트업 ‘NEST’의 경우 300여건에 이르는 특허 포트폴리오가 고가의 인수 결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반면, 2012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SW를 개발한 국내 벤처 ‘L’사는 구글로부터 3천만불 투자 유치 직전까지 갔으나, 관련 특허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로 무산되었다.

이처럼 특허 등 지식재산(IP)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경쟁자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유치, 업무제휴 및 엑시트(인수합병 및 상장)를 촉진한다.

국내 스타트업들도 I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IP 서비스 비용은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약 10억원으로 100여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신생벤처기업을 지칭

○ 특허 바우처를 활용해 앞으로 유망 스타트업은 필요한 IP 서비스*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IP서비스) 국내/해외 IP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 바우처는 IP 보유 여부, 업력, 규모에 따라 소형과 중형 두 종류가 있으며, 각 바우처 금액의 자기부담금(30%, 현금) 선납 후 바우처를 포인트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바우처 종류 ＞

-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IP가 없는 초기 스타트업 대상
*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
-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성장기·유망 스타트업 대상
*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출원 또는 등록 IP 1건 이상

○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이며, 서류 및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할 예정이다.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한편, 스타트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바우처 재발급을 포함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 스타트업은 재발급 신청을 통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잔액이 있다면, 잔액의 자기부담금 비율(30%)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 또한, 특허바우처에 선정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시 예상되는 IP 분쟁에 대비하고자 할 경우 특허청의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동 사업에서 IP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특허사무소·법인, 기타 IP 서비스 기업 등)은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 등록을 신청하여, 분야별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등록될 수 있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 원하는 서비스와 업체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지식재산 업계의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의 스타트업 신청서 접수와 IP 서비스 기관 등록은 2.12(월)부터 3.9(금)까지이며, 자세한 접수방법과 지원내용은 사업관리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sta.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2018년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스타트업의 IP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비용 지불

□ 지원 대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 선정 절차: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선정

<평가 항목 및 지표(안)>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기술성, IP 확보 가능성 (30점)	기술의 우수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기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사 기술에 비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가?	20점
	IP 확보 가능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가?	10점
시장성 (30점)	시장 수요	사업 아이템 관련 시장이 충분한가?(Product-Market Fit)	20점
	상용화 가능성	기술·아이디어의 완성도·수준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10점
창업자(팀) 역량(40점)	창업자	창업자의 열정, 리더십, 실행력 등 기업가정신 관련 역량	20점
	구성원	창업자 외 스타트업 구성원의 역량	20점
가점(10점)		VC, 엔젤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기준 금액 이상)기업, 직무발명 우수 인증기업 등	10점

□ 지원 규모: 총 903백만원(바우처 발급 예산)

바우처 금액 (자기부담)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현금 30%)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현금 30%)
지원 자격	창업 3년 미만, 매출 10억 미만	창업 7년 미만, 매출 100억 미만, 및 IP(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1건 이상
발급 한도	연 3회 발급 가능(중형바우처 최대 6천만원)	
선정 주기	연 3회(2~3월, 6~7월, 10~11월)	
IP 서비스 메뉴	국내·해외 IP(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센싱) 중계 등 * (이용불가)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사업 신청 전 이용 서비스, IP 출원·등록 수수료 등	

□ 바우처 발급 및 사용 등

- (발급) 스타트업의 '자기부담(현금 30%)'분 선납 후 바우처 금액이 포인트로 발급되며, 스타트업이 先발급 바우처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바우처 사용 기한 내에 한도* 내에서 재발급 가능

* 연 3회까지 발급 가능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선발시 우선순위 부여)

- (사용) 스타트업은 바우처 사용 기한 내에 자유롭게 IP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수수료* 지불

* 개별 서비스 수수료(공급가액)가 정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10%)도 이용자 부담(서비스 수행기관에 별도로 제공)

- (환급)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의 자기부담 비율(30%)만큼 환급
- (정산) 서비스 종료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결과물·세금계산서 제출, 이용자 및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산(수행기관이 받은 포인트→현금)

□ 추진 일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 설명회												
· 공고, 신청 및 선정		1차				2차				3차		
· 바우처 발급			1차				2차				3차	
· 바우처 사용			1차				1차, 2차				3차	

□ 기타 사항

-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종류·전문기술 분야별로 특허사무소, 특허조사·분석업체 등을 모집하여 Pool 구성(상·하반기)

Pool 등록 자격기준(안)

- (공통) 국내에 등록된 사업체(개인사업자 및 법인) 또는 공공기관
- (IP 권리화) 변리사 3명 이상 보유
- (특허 조사분석) 업력 1년 이상, 전문 인력 2명 이상, 실적 5건 이상 보유
- (특허기술가치평가) 발명의 평가기관 15개
- (기술이전) 업력 1년 이상, 기술이전 실적 5건(계약서 기준) 이상

연락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2-3287-4217)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	--